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



지난 12일 제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설정스님(오른쪽)은 지난 8년간 안정과 화합으로 종단 발전을 이끌어 온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노고가 실로 크다며, 교구중심제, 대중공사에 기초한 종단 쇄신, 승려복지제 등 기존 과업을 온전히 계승해 살을 붙이고 열매를 틔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미래세대위원회’ 21일 출범

미래세대 중심인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다.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호성·금곡스님) 산하 미래세대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출범식을 거행한다.

‘청년과 함께 하는 부처님(Buddha with Youth)’이라는 주제의 이날 출범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사청년회 회원 등 다양한 청년층들이 참석해 미래세대위원회의 첫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미래세대위원회는 앞으로 청년들과 힘을 합쳐 다채로운 정책과 대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미래세대 아카데미’ 개최, 청년세대의 아픔과 고민을 치유하는 ‘청년힐링 템플스테이’도 진행한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스님과 불자들이 ‘연애’, ‘취업’, ‘인간관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객석에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녹록지 않은 청년들의 현실을 스님과 불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걸어온 길·정책 및 공약 2~3면

과반 훌쩍 넘은 234표 득표
“종단운영에 한 치 어긋남 없이
공심으로 일로매진” 당선 소감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 만드는데 최선을”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설정스님이 당선됐다. 설정스님은 지난 1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서 과반이 훌쩍 넘는 234표를 얻어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탄생했다. 득표

율 73.4%. 이날 선거는 전체 선거인단 319명 가운데 319명 전원이 투표했다. 다른 후보인 기호 2번 수불스님은 82표를 얻는데 그쳤다. 무효표는 3표 나왔다.

이날 설정스님은 중앙선관위원장 종훈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직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앞에 삼배했다. 이어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정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갈 것”을 발원했다. 이날 설정스님은 먼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하게 회향되기까지 신심과 정성을 다하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의 예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뜻을 거울삼아 신심과 원력을 다해 종단 발전에 씬 없이 진력할 것”이라며 “하심하고 조고각하하며 종도들 뜻을 살

피고 해야, 종단 운영에 있어서도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공심으로 일로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총무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을 때부터 강조해온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설정스님은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기꺼이 그 길에 나설 것이며, 종도 여러분과 도반이 되어 함께 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설정스님은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같이 지니고, 소견을 같이 나누며,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며 “우리 모두 일불제자로서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자”고 발원했다. 설정스님은 오는 18일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31일부터 4년간 종단을 이끌게 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존경심·종단수호·지속가능한 발전 ‘확신’

뉴스분석 >

종도들은 왜 설정스님을 선택했나

득표율 73.4%. 가뻔한 승리였다. 과반을 훌쩍 넘는 여유로운 당선에선 여러 함의를 읽을 수 있다. 설정스님 개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집요하게 곱씹혀온 이른바 ‘적폐청산’ 세력으로부터 종단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는 안정과 화합에 대한 욕망이다. 33·34대 집행부에서 어렵게 일궈낸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헛되이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책임감에, 대중이 결속했다는 시각이다.

설정스님은 이미 공인된 ‘큰스님’이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중앙종회의장으로 재직하며 개혁입법을 진두지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

후엔 덕숭총림 수석방장으로서 모범적인 승가공동체를 완성했다. 행장이 제조명되면서 살아온 길이 얼마나 울퉁고 담박했는지 새삼 드러났다. 다들 몸으로 보여 온 공심(公心)에 반했다. 설정스님 선거대책본부에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원택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사(理事)에 능통한 검증된 어른으로서 과연 종단을 위한 헌신이란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설정스님은 역대 최악의 금권 및 비방선거를 극복해냈다는 평을 듣는다. 삼류 정치관 뺄질 무자비한 신상 탈기가 난무했다. 대세에 군림이라도 낼 요량에 징계승과 이교도들은 사력을 다 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흑심도 부처님도랑 곳곳에 뿌려졌다. 조계사 앞에서 보신각에서, 종현충법은 절저히 무시됐다. ‘해중언론’의 야료(惡料)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집착

으로 무리하게 짜낸 방법이 도리어 자충수가 됐다”는 어느 유권자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한편으로 ‘구태’의 비약적인 업그레이드로 인해, 선거제를 아예 없애자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일하게 될 설정스님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불교와 종단 중흥의 결실과 노고는 실로 크다”며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8년에 박수를 보냈다. 교구중심제, 대중공사에 기초한 종단 쇄신, 승려복지제 등 기존의 과업을 온전히 계승해 살을 붙이고 열매를 틔우겠다는 다짐이다. 신규약 언세 대 철학과 교수는 “종단의 현실을 개선해나갈 최적의 인물인 만큼 종도 전체의 지지와 승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설정스님이 서원한 ‘존경받는 불교’는 결국 스님을 존경하는 불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나랏일 시급” 남한산성으로… 5면

“울장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덕문스님 본지연재 엮은 신간
‘알면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들’ 11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설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대번호 25401)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삼보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중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하게 회향되기까지 신심과 정성을 다하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에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종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단 안팎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협치보다는 분열의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도 지속적 불교개혁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뜻을

거울삼아 저는 신심과 원력을 다해 종단 발전에 씬 없이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하심하고 조고각하하며 종도들의 뜻을 살피고 해야겠습니다. 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심으로 일로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종도 여러분들의 발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설 것이며, 종도 여러분들과 도반이 되어 함께 견고자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 그리고 관제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수불스님과 혜총스님, 원학스님에도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년간 안정과 화합을 통해 종단 발전을 이끌어 오신 총무원장 자승스님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곳곳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시며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했고, 대중공사를 통한 종단쇄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승가복지의 뿌리를 내리는 등 불교와 종단 중흥의 결실과 노고는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같이 지니고, 소견을 같이 나누며,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불제자로서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자 설정 합장